

0-8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0-8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Mothers' Psychological States

: Based on Boryung Baby Panel Dat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박혜준**

교수 한경혜

박사과정 박새롬***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 장미나

마이애미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조교수 전을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Hye-Jun

Professor : Han, Gyoung-Hae

Doctoral Course : Park, Sae-Rom

Seoul National Univ. Institute on Aging

Researcher : Chang, Mi-Na

Educational Psychology, Miami Univ.

Assistant Professor : Chun, Eul-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 ages 0 to 8, and then explore specifically how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al levels are related to mothers' psychological states. This study was part of newly launched Boryung Baby Panel Study using web-based survey in 2011. The subjects were all mothers of 940 infants(0-2 years), 654 toddlers(3-5 years), and 484 school-age children(6-8 years) The mothers were asked to administer the web-based standardized developmental checklist for their child and fill out the questionnaires of psychological variables(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SPSS 20.0 window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fants(0 to 2) showed higher developmental level in cognition and fine motor skill domain compared to other domains. 2. Most toddlers(3 to 5) showed normal development in the most domain such as gross motor skill, fine motor skill, language, letter, number, self-help behavior. 3.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domain, the ratio of risk or delay group were highest at both infant and toddler. 4. The 6-8 years old children that belong to risk group by the result of SDQ(emotion and behavior assessment)

* 본 논문은 보령모자생활과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으로, 2012년 한국가정 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내용을 확장한 것임.

** 주저자 : 박혜준 (E-mail : hyejun@snu.ac.kr)

*** 교신저자 : 박새롬 (E-mail : dplum11@snu.ac.kr)

were also relatively high. 5. The relation of th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and the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reciproca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영아(infant), 유아(toddler), 학령기 아동(school-age child), 사회정서 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성(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I. 서론

과거에 비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의 양육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중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출산과 같은 출산 문화의 변화는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10년(1.23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가족과 부모의 삶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자녀에게 가능한 한 경제적, 정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최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Han, Lee, & Chin, 2009).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매체로 한 양육환경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오늘날 아동이 처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문화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곧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의 변화는 아동의 발달 속도 및 발달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양육환경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중재 계획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하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표집된 종단연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근 들어 영유아를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특성 및 실태에 관한 전국 규모의 연구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에서는 총 6,923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및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0~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대별 발달 현황 및 복지, 양육환경 전반을 살펴보았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2010)은 2008년 1차년도 조사를 기점으로 만 1세 영아의 발달을 추적조사 하

였으며 현재 1,802명의 3차년도 조사와 함께 2010년 출생한 1,000여명의 신생아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2006)에서 실시한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에서는 1-36개월 영아 2727명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영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지표를 마련하고, 2차년도에 1차년도의 1개월 영아 집단(450명)을 추적조사 하여 각 발달 영역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발달 지체나 장애를 예방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원(2011)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1, 초4, 중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7년 간 아동 개인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아동의 발달 양상 및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표본을 기초로 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부터 취학 연령까지 포함하는 생애 초기의 발달에 대하여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각 발달영역별로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대인관계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양방향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De Mol & Buysse, 2008; Park & Chung, 2010).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 행동, 정서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Huston, 2002). 과거에는 부모-자녀 관계를 일방적인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Maccoby, 2003). 첫 번째 관점은 부모의 양육이 자녀를 만드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인데, 부모만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두 번째 관점은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그것이 관계의 한 주체로서 미치는 능동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자

녀의 연령, 성별, 기질과 같은 타고난 측면만을 강조하는 관점이다(Russell & Russell, 1992).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의 양방향적 관점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복잡한 상호호혜적인 체계라고 보고(Kuczynski, 2003),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의 동등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Kuczynski, Harach, & Bernardini, 1999). 주체성(Agency)이란 Bandura(2001)가 제시한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계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주 어린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해가고 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어머니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타고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Music, 2011).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 심지어 쌍둥이도 이미 태내에서 부모로부터 동일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Piontelli, 1992; Harris, 2009). 자녀의 기질과 행동 특성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반응이 또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Fearon et al., 2006; Neiderhiser & Lichtenstein, 2008).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모니터링과 교육방식(Kerr & Stattin, 2003), 사회화 전략(Grusec & Goodnow, 1994), 부모의 여러 가지 성격 측면들(Palkovitz et al., 2003)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이러한 양방향적 특성은 장기간의 친밀한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uczynski & Parkin, 2006). 부모와 자녀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며, 일생 동안 상호의존적인 장기적 관계를 통하여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Watzlawick, Jackson, & Beavin, 1967).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의 양방향성과 지속적인 영향력은 발달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및 양육 실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양육 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다. 먼저 부모의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은 양육 민

감성과 관련이 있으며, 생애 초기 아동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환경과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발달 초기에 아동의 요구에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아동의 정서상태에 민감하며, 공감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안정애착, 정서조절,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발달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Fonagy, 2002; Sroufe, 2005;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과 애정 어린 양육은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usic, 2011). 독일의 한 고아원에서, 정서적 돌봄 없이 냉정하고 처벌적인 훈육만 제공한 교사가 돌본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애정적인 교사에게 양육된 아이들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이 더 지연되었다(Widdowson, 1951). 고아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부모 자신이 산후우울증과 같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아이의 정서적인 요구나 신호에 둔감하여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Martins & Gaffan, 2000; Field, 2002). 이렇듯 부모의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과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 아기와 상호작용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인 반응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아동은 건강한 애착 형성에 실패하며(Hesse & Main, 2000), 이후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정서적 건강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곧 행복한 것은 아니다(Bradburn & Noll, 1969). 따라서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만큼 긍정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므로(Seligman, 2002), 어머니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우울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각각 아동의 발달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특성들은 자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동시에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elsky, 198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부정적 정서 반응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Kim & Choi, 2007; Min & Park, 2012),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초기 아동의 사회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rnic & Greenberg, 1990; Park & Jang, 2004). 자녀에 대한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Lee & Lee, 2009)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양육효능감(Kim, 2011) 등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한국 아동의 발달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규모로 표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0-8세 한국 아동의 발달수준 특성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3집단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영아(0-2세)와 유아(3-5세)의 경우에는 표준 발달지표를 근거로 한 발달검사 결과를 통해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등 발달영역별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학령기 아동(6-8세)은 전반적 발달보다는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Wood, Cowan, & Baker, 2002; Sroufe, 2005) 정서행동발달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 관계라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녀의 발달수준, 특히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수준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과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생애 초기 정서적 환경의 질은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고, 생애 초기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은 언어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Mundy & Burnette, 2005; Winsler, Fernyhough, & Montero, 2009)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 및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족 단위의 중재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0-8세 아동의 전반적 발달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0-8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정상/위험군)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먼저 한국리서치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어머니들을 모집하였고(201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진의 조사도구 개발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2011년 9-10월). 본 조사 실시과정 중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탈퇴한 패널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 거주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보령 베이비패널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아동발달검사 및 설문도구를 웹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표준화된 아동발달검사(DEP: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K-CDI: 한국아동발달검사)는 학지사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본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총 2,188명의 패널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아동발달검사 자료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2,078명의 아동 및 어머니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영아(0-2세) 940명, 유아(3-5세) 654명, 학령기 아동(6-8세) 48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0-8세 아동의 발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 학령기(6-8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각기 다른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정서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2가지 요인으로, 양육관련 특성은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각 검사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선별 · 교육진단검사 (DEP)

0-2세 영아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0-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표준화된 영아선별 · 교육진단검사(DEP: Developmental assess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Chang, Ha, & Seo, 2007)를 실시하였다. DEP는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영역 등 6개 하위영역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영역별 원점수가 되며, 영역별 원점수의 표준점수 및 백분위 환산표를 이용하여 발달수준을 5단계로 구분한다. 백분위 80 이상일 경우 매우 빠름, 65-80은 빠름, 35-65는 보통, 20-35는 느림(관찰요망), 20 이하는 매우 느림(2차 전문가 평가 필요)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한국아동발달검사 (K-CDI)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은 한국아동발달검사(K-CDI: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통해 측정하였다. K-CDI는 Ireton(1992)이 개발한 CDI(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Kim and Shin(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15개월-6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발달선별검사이다. 총 300 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등 8개 영역과 전체발달 및 문제항목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항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K-CDI는 2010년 개정판에서 채점 및 결과해석이 온라인화되었으며, 검사는 부모-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는 표준화된 프로파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각 하위영역 및 전체발달 검사결과는 정상-경계선-지연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정서행동평가 (SDQ)

6-8세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점, 난점 질문지(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Goodman, 1997)를 사용하였다. SDQ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건강 관련 진단기준인 DSM-V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와 국제 질병 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분류학적 개념을 차용하였다. SDQ는 정서행동발달영역의 문제영역인 정서문제, 품행문제,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 또래관계문제의 네 가지 난점과 친사회성이라는 한 가지 강점을 측정하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SDQ에서 친사회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의 총점을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행

동문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 0점, '다소 그렇다' 1점, '분명히 그렇다' 2점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문제영역에 대한 총 점수에 따라 0-11점은 '정상(normal)', 12-15점은 '경계선(borderline)', 16-40점은 '위험군(abnormal)'으로 분류할 수 있다(Goodman, 1999). 정서행동평가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6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7점)까지 7점 척도로 하여 해당되는 만족도 수준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5) 우울

어머니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 사용된 우울 척도(육아정책연구소, 20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30일 동안 각 문항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알아보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화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우울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양육태도 (FIQ-R)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 영향력 질문지(FIQ: Family Impact Questionnaire)(Donenberg & Baker, 1993)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녀를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동과 비교해볼 때 부모로서의 삶과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정한다.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개정된 FIQ-R(총 38문항)이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느낌과 태도' 영역 15문항 중에서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화되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태도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7) 양육효능감 (PSOC)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육효능감 척도(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Gibaud- Wallston & Wandersman, 1978)를 사용하였다. PSOC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인 차원에서 부모

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원척도는 총 16문항이나 이 조사에서는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PSOC를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질문지는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과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4문항)을 측정하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조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되었으며, 부정형 1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6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 양육스트레스 (PDH)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질문지(PDH: Parenting Daily Hassles)(Crnic & Greenberg, 1990)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일상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스트레스 상황의 빈도)와 각각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스트레스의 강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는데, 스트레스 강도는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0-8세까지 폭넓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연령별 발달특성 및 양육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 공통으로 15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정상/위험군)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1)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 분포를 보면 총 2,078명 중 영아기(0-2세) 45.2%(940명), 유아기(3-5세) 31.5%(654명), 학령기(6-8세) 23.3%(48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전체의 50.7%, 여아가 49.3%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 연령별로도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전체의 85.6%가 첫째아인 것으로 나타난 자녀 가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대부분 30대인 것을 고려해볼 때 초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평균 초산 연령은 30.1세로 2000년 27.6세, 2004년 28.8세, 2008년 29.6세에 이어 점점 연령이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돌파하였다(통계청, 2011).

2)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0세로 30대 부모가 대부분이었으며 최소 20세에서 최대 47세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는 전체의 17.5%(371명)가 30세 이하이며, 31-35세가 48.5%(1030명), 36-40세가 29.1%(619명), 41세 이상이 4.9%(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 63.8%(1,3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는 전체의 33.4%(710명)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모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아기 자녀의 돌봄 및 양육을 위해 잠시 일을 쉬거나 직장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취업모들의 경우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이 50.6%(3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취업모 가운데 76.5%(540명)이었다. 가구소득은 전체의 41.5%(881명)가 20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 (881명)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19.2%만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중산층 가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가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웹상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인터넷 활용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젊은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코호트별로 어머니들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2. 0-8세 아동의 전반적 발달 경향

1) 영아(0-2세)의 발달 특성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이하 DEP)를 통해 살펴본 0-2세 영아의 발달수준은 <Table 3>과 같다. 전체발달 및 각 하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2,078 (Unit: frequency, %)

		Group 1 (Ages 0-2) n=940	Group 2 (Ages 3-5) n=654	Group 3 (Ages 6-8) n=484
Average Monthly Age		17.2	55.7	90.3
Gender	Boys	457(48.6)	327(50.0)	269(55.6)
	Girls	483(51.4)	327(50.0)	215(44.4)
Birth Order	First	802(85.3)	548(83.7)	428(88.4)
	Second	112(11.9)	101(15.5)	50(10.3)
	Third	25(2.7)	3(0.5)	6(1.4)
	Fourth	1(0.1)	2(0.3)	-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2,124 (Unit: frequency, %)

		Group 1 (Ages 0-2) n=953	Group 2 (Ages 3-5) n=664	Group 3 (Ages 6-8) n=507
Average age M(SD)		33.6(4.40)	34.2(3.93)	34.5(3.8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19(23.0)	215(32.4)	181(35.7)
	University degree	644(67.6)	413(62.2)	299(59.0)
	Graduate school	90(9.4)	36(5.4)	27(5.3)
Employment status	Housewife	646(67.8)	438(66.0)	330(65.1)
	Working mother	307(32.2)	226(34.0)	177(34.9)
Type of work ¹⁾	Professional/Technical	68(22.6)	45(20.0)	39(22.0)
	Office job	158(52.5)	125(55.6)	73(41.2)
	Sales/Service	30(10.0)	32(14.2)	34(19.2)
	Production	3(1.0)	3(1.3)	3(1.7)
	Self-employed	25(8.3)	7(3.1)	12(6.8)
	Other	17(5.6)	13(5.8)	16(9.1)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2,000,000 won	185(19.6)	128(19.4)	92(18.4)
	2,010,000 won - 3,500,000 won	394(41.6)	268(40.6)	219(43.9)
	3,510,000 won - 5,000,000 won	264(27.9)	188(28.5)	156(31.3)
	more than 5,000,000 won	103(10.9)	76(11.5)	32(6.4)

1) Missing values were included.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정서 발달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매우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발달 영역에서 '매우

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53.5%(5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빠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69.5% (653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전문가의 평가가 요구되는 '매우느림'에

Table 3. Overall Development of Group 1(Ages 0-2) from DEP

(Unit: frequency, %)

Domain	Very slow	Slow	Normal	Fast	Very fast	Total
General development	102(10.9)	45(4.8)	172(18.3)	211(22.4)	410(43.6)	940(100.0)
Gross motor skill	129(13.7)	51(5.4)	177(18.8)	223(23.7)	360(38.3)	940(100.0)
Fine motor skill	102(12.8)	41(4.4)	159(16.9)	228(24.3)	392(41.7)	940(100.0)
Communication	132(14.0)	99(10.5)	168(17.9)	157(16.7)	384(40.9)	940(100.0)
Socio-emotion	149(15.9)	52(5.5)	213(22.7)	293(31.2)	233(24.8)	940(100.0)
Cognition	81(8.6)	52(5.5)	154(16.4)	150(16.0)	503(53.5)	940(100.0)
Self-help skill	105(11.2)	70(7.4)	168(17.9)	242(25.7)	355(37.8)	940(100.0)

Table 4. Overall Development of Group 2(Ages 3-5) from K-CDI

(Unit: frequency, %)

Domain	Normal	Risk		Total
		Borderline	Delayed	
General development	613(93.7)	13(2.0)	28(4.3)	654(100.0)
Social skill	499(76.3)	21(3.2)	134(20.5)	654(100.0)
Self-help skill	577(88.2)	25(3.8)	52(8.0)	654(100.0)
Gross motor skill	598(91.4)	12(1.8)	44(6.7)	654(100.0)
Fine motor skill	602(92.0)	16(2.4)	36(5.5)	654(100.0)
Expressive language	598(91.4)	16(2.4)	40(6.1)	654(100.0)
Receptive language	597(91.3)	23(3.5)	34(5.2)	654(100.0)
Letter cognition	608(91.6)	8(1.2)	38(5.7)	654(100.0)
Number cognition	605(92.5)	11(1.7)	38(5.8)	654(100.0)

분류된 비율 또한 8.6%(81명)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작용한 결과이며, 풍부한 지적 자극이 주어지는 양육환경의 영향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등 신체발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빠름'과 '매우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각각 62.0%(583명), 66.0%(620명)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점점 빨라지고 있는 영아기 신체발달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느림' 또는 '매우느림'으로 분류된 영아는 대근육 운동기술 19.1%(180명), 소근육 운동기술 17.2%(143명), 의사소통 24.5%(231명), 사회정서 21.4%(201명), 인지 14.1%(133명), 기본생활 18.6%(175명), 전체발달수준 15.7%(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발달 영역에서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하여 발달이 지연된 영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매우느림'에 속

한 유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 영역은 사회정서발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발달 영역에서 보인 상당히 빠른 발달수준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3-5세)의 발달 특성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은 한국아동발달검사(이하 K-CDI) 결과를 통해 정상 및 위험군(경계선, 지연)으로 구분하였다. 전체발달 수준 및 8개 하위영역의 검사 결과는 정상-경계선-지연 3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선 및 지연 수준에 속하는 아동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 각 하위영역에서 약 90% 이상의 유아는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는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는 23.7%(155명)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발달 경향에서

Table 5. Emotion-behavior Development of Group 3(Ages 6-8) from SDQ

Score M(SD)					Developmental level N(%)			
Emotional symptoms	Problem behavior	Hyperactivity/ Attention problems	Peer problems	Prosocial behavior	Normal (0-11points)	Borderline (12-15points)	Risk (16-40points)	Total
2.41 (1.83)	1.56 (1.32)	3.34 (2.19)	2.32 (1.60)	6.87 (2.00)	331 (68.4)	98 (20.2)	55 (11.4)	484 (100.0)

여러 발달 영역 중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 발달이 지연된 영아의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영아기에 의사소통발달에서 지연된 영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유아기에는 표현언어 및 언어이해발달에서 각각 91.4%(598명), 91.3%(597명) 이상이 정상발달로 분류된 것을 볼 때, 초기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유아기에 대부분이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학령기 아동(6-8세)의 정서·행동발달 특성

6-8세 학령기 아동의 발달은 각 영역별 특성보다는 초기 발달영역 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및 또래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은 정서행동발달(Sroufe, 2005)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아동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서행동발달수준을 평가하는 강점·난점 질문지(이하 SDQ) 결과를 통해 정상, 경계선, 위험군의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 SDQ 결과의 원점수를 살펴보면 친사회성 점수의 평균이 6.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영역에서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의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친사회성 점수가 다른 문제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어머니들이 문제영역에 비해 친사회성이라는 강점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학 후 학교에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친사회성이라는 강점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과 긍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영역 총점에 따른 발달수준 분류를 살펴보면, 발달수준을 정상과 위험군으로 분류해본 결과, <Table 5>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상에 속하는 아동 68.4%(331명), 경계선에 속하는 아동 20.2%(98명) 이었고,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도 11.4%(55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31.4%(153명)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던 0-8세 아동의 발달 양상을 보면 영유아기에는 전반적으로 신체 및 인지 영역에서 비교적 빠른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정서 및 사회성 관련 영역에서는 현저히 높은 비율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령기의 정서행동문제가 경계선 및 위험군에 분류되는 아동이 31.4%에 이르는 것과도 연결된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각 연령별로 발달이 정상 및 위험군으로 분류된 각 집단 간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영아(0-2세)의 발달수준은 DEP의 사회정서발달 분류 중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느림' 및 2차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매우느림'에 속한 경우를 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보통', '빠름', '매우빠름'에 분류된 나머지 경우를 정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유아(3-5세)는 K-CDI 사회성 발달수준이 '경계선' 및 '지연'에 속하는 유아를 위험군으로, 학령기 아동(6-8세)은 SDQ 정서행동평가 결과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를 위험군에 포함시켜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 집단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 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들은 척도가 모두 다른 것을 고려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인 Z점수로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1)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 분류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각 연령별로 사회정서 발달검사 결과 발달수준이 정상 및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 집단 간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Table 6. T-test : Differ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by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Group	Variables	Developmental level		t	
		M(SD)			
1 (Ages 0-2) N=940	Emotional	Life satisfaction	Normal (n=739) .08(1.00)	Risk (n=201) -.03(1.04)	1.35
		Depression	-.05(1.00)	.08(1.06)	-1.56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24(.94)	-.02(1.00)	3.51***
		Parenting efficacy	.20(.97)	-.05(1.10)	2.99**
		Parenting stress	.21(1.02)	.36(.99)	-1.85
2 (Ages 3-5) N=654	Emotional	Life satisfaction	Normal (n=499) .00(.10)	Risk (n=155) -.20(.10)	2.15*
		Depression	-.03(.96)	.32(1.03)	-3.89***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01(.94)	-.49(1.17)	4.66***
		Parenting efficacy	-.02(.97)	-.46(1.11)	4.75***
		Parenting stress	-.13(.94)	.11(.97)	-2.77**
3 (Ages 6-8) N=484	Emotional	Life satisfaction	Normal (n=331) .20(.85)	Risk (n=153) -.54(1.06)	7.47***
		Depression	-.31(.84)	.56(1.03)	-9.07***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14(.88)	-.86(.88)	11.57***
		Parenting efficacy	.12(.81)	-.60(.96)	8.03***
		Parenting stress	-.60(.77)	.09(.96)	-7.80***

* $p < .05$, ** $p < .01$, *** $p < .001$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영아의 경우, DEP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는 양육관련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상군 어머니(M=.24, SD=.94)는 위험군 어머니(M=-.02, SD=1.00)에 비해 양육태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t=3.51$, $p < .001$), 양육효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20, SD=.97)가 위험군 어머니(M=-.05, SD=1.1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 $p < .01$).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36, SD=.99)가 정상군 어머니(M=.21, SD=1.02)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보다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효능감도 더 높았다. 양육스트레스에서는 두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다른 연령대의 어머니들에 비해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대처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에서는 정상

군과 위험군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아의 경우 K-CDI 사회성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는 정서적 특성 및 양육관련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삶의 만족도는 정상군 어머니(M=.00, SD=.10)가 위험군 어머니에 비해(M=-.20, SD=.10) 유의하게 더 높았고($t=2.15$, $p < .05$), 우울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32, SD=1.03)가 정상군 어머니(M=-.03, SD=.96)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3.89$, $p < .001$). 양육관련 특성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에서는 정상군 어머니(M=-.01, SD=.94)가 위험군 어머니(M=-.49, SD=1.17)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4.66$, $p < .001$), 양육효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02, SD=.97)가 위험군 어머니(M=-.46, SD=1.1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4.75$, $p < .001$). 반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11, SD=.97)가 정상군 어머니(M=-.13, SD=.94)보다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2.77$, $p < .01$). 즉, 사회성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는 위

험군에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우울감은 덜 느끼며,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양육효능감도 더 높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아동의 어머니는 정서적 특성 및 양육관련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삶의 만족도는 정상군 어머니(M=.20, SD=.85)가 위험군 어머니(M=-.54, SD=1.06)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고($t=7.47, p<.001$), 우울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56, SD=1.03)가 정상군 어머니(M=-.31, SD=.84)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9.07, p<.001$). 양육관련 특성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에서는 정상군 어머니(M=.14, SD=.88)가 위험군 어머니(M=-.86, SD=.88)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11.57, p<.001$), 양육효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12, SD=.81)가 위험군 어머니(M=-.60, SD=.96)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8.03, p<.001$). 반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09, SD=.96)가 정상군 어머니(M=-.60, SD=.77)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7.80, p<.001$). 즉,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는 위험군에 분류된 아동의 어머니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우울감은 덜 느끼며,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느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 0-8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및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 분류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의 5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발달수준 분류(정상/위험군)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영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를 설명한다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4.74, p<.05$). 개별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우울,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중 양육태도(B=.26, $p<.05$)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영아의 DEP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를 설명한다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chi^2=31.56, p<.001$), 개별 변인들 중 양육태도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32, $p<.05$). 유아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아의 K-CDI 사회성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우울, 양육태도, 양육

Table 7. Logistic Regression :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Normal)

Variables	Group 1 (Ages 0-2) N=940		Group 2 (Ages 3-5) N=654		Group 3 (Ages 6-8) N=484	
	B(SE)	Exp(B)	B(SE)	Exp(B)	B(SE)	Exp(B)
Life satisfaction	-.04(.10)	.97	-.14(.12)	1.15	.28(.14)*	.76
Depression	.08(.11)	1.09	-.15(.13)	1.16	-.34(.15)*	1.41
Parenting attitude	.26(.13)*	1.29	.32(.14)*	.73	.72(.16)***	.49
Parenting efficacy	.15(.11)	1.16	.22(.12)	.80	.38(.15)*	.69
Parenting stress	-.11(.10)	.99	.01(.12)	.99	-.32(.15)*	1.38
(Constant)	1.26(.09)***	3.54	1.31(.10)***	.27	1.10(.15)***	.33
	-2LL= 960.95 $\chi^2=14.74(p<.05), df=5$		-2LL= 684.70 $\chi^2=31.56(p<.001), df=5$		-2LL= 451.10 $\chi^2=152.84(p<.001), df=5$	

* $p < .05$, ** $p < .01$, *** $p < .001$

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의 정상 분류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152.84, p<.001$). 개별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삶의 만족도($B=.28, p<.05$)와 우울($B=-.34, p<.05$), 그리고 양육관련 특성인 양육태도($B=.72, p<.001$), 양육효능감($B=.38, p<.05$), 양육스트레스($B=-.32, p<.05$) 모두 정상 분류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수준은 낮으며, 자녀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느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받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전 연령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 및 긍정적인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발달검사를 통해 한국 아동의 전반적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자 만 0~8세 아동 2,078명의 발달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아동의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아와 유아 모두 인지 및 신체발달 영역에서 동일 연령대에 비해 빠른 발달수준을 나타내었다. 영아(0-2세)의 경우 영역별 발달수준이 보통 이상(보통, 빠름, 매우빠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 하위영역별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 연령대의 영아에 비해 발달이 빠른 영아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 및 소근육운동 발달에서 '매우빠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영아기 때부터 충분한 인지적 자극 및 다양한 놀이감을 통해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최근의 양육환경과, 한 자녀에게 집중되는 교육 투자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3-5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신체(대근육/소근육운동), 언어(표현언어, 언어이해), 인지(글자, 숫자) 등의 발달영역에서 모두 90% 이상의 유아가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이 동일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자료는 웹 형식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인터

넷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어머니들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대체로 중산층에 속하며 건강한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활용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젊은 어머니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자료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최근 젊은 부모들의 양육문화를 고려해볼 때 대표성을 띠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한 명, 많아야 두 명의 자녀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욱 신뢰로운 양육정보 출처는 바로 인터넷이다. 한 연구에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주로 이전 양육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전 양육경험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양육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10). 자녀 양육의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한국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h, 2004). 신뢰로운 양육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에 관심이 높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적, 지적 자극 및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신체 및 언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비교적 빠른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아와 유아 모두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관련 영역에서 발달 지연 및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아의 경우 웅얼이, 말하기와 듣기, 이해하기 등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발달 영역에서 '느림'과 '매우느림'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 자아개념, 다양한 감정표현 등을 측정하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느림'과 '매우느림'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인지 발달 영역과 비교해보면 '매우빠름'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유아의 K-CDI 결과 사회성 발달수준은 기타 발달영역들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패널조사(2010)에서 K-ASQ를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수준을 살펴본 결과, 위험발달군 5.5%, 의심발달군 12.3%로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아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영아의 발달수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와 어머니 모두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필요한 발달 영역이다. 영아기에는 언어로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영아의 미묘한 신호를 어머니가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

려울 수 있다. 그리고 주양육자 1인과 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발달 시기상의 특성으로 인해 영아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기대하는 의사소통, 즉 언어 발달 수준은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발달 지연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는 의사소통 발달 영역에서 발달 지연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유아기에 언어 발달 영역에서 90% 이상이 정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성장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발달 궤적을 찾아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유아는 끊임없는 언어적 자극과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들을 접하게 되면서 급격한 언어발달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대뇌 발달과 맞물려 인지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이며(Garon, Bryson, & Smith, 2008), 인지 발달과 함께 생후 18-24개월 이후부터 어휘 폭발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용가능한 어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언어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Lenneberg, 1967; Jang, 2004).

반면 영아기에 발달 지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유아기에도 마찬가지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때, 인지 및 언어발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유환경 및 아동을 둘러싼 미디어환경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다른 발달 영역과의 비교보다는 각각의 영역이 개별 변인으로 다루어졌고 제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Rhee, 2000), 전반적 발달 검사를 통해 다른 발달 영역들과의 비교를 통해 발달 수준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발달검사 도구인 K-CDI에서 사회성 영역은 개별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집단 참여 상황에서 부모, 아동,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 발달을 측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은 외동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 과거와는 달리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취업모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좀 더 일찍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구조화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다른 어떤 발달 영역보다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경향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들은 친사회성이라는 강점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점수는 친사회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성과 관련된 품행문제, 또래관계문제 등을 포함하는 정서행동문제 평가 결과 위험군(경계선 포함)에 분류된 아동이 30% 이상이었다. 정서행동문제 하위영역 중에서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규모로 실시된 한국아동발달현황조사(Rhee et al., 2002)에서 부모가 응답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상 부적응 문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항목이 '집중력 부족'이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중에서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국내 역학조사 결과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유병률(6-8%)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주의력 및 과잉행동과 관련된 문제는 취학 후 구조화된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욱 눈에 띄는 문제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요구나 기대가 매우 높아 자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정상/위험군)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에 속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영아기에서 학령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과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은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 분석 실시 결과 전 연령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취업여부,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로 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더욱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지속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서 서로 필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양방향적 관점(De Mol & Buysse, 2008)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한국의 만 0-8세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알아보았고, 이후의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동일 연령대 아동들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品行문제, 또래관계 문제 등 사회성과 관련된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 발달 지연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환경에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발달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며, 동시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은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어머니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발달 중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보다 부부관계 상담을 받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도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Cowan & Cowan, 200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다른 발달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는 DEP의 사회정서 영역, 유아는 K-CDI의 사회성 영역, 학령기 아동은 SDQ의 정서행동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3가지 검사도구들은 각각 표준화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을 정상 및 위험군(또는 지연)으로 분류해주어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EP와 K-CDI는 중립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반면 SDQ는 문제행동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어머니 응답에서 편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어머니에게 실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영역의 평가에 있어서는 각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동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좀 더 관대한 어머니와 문제행동에 엄격한 어머니의 응답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DQ의 문제행동영역은 정서 및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뿐만 아니라 집중력 및品行문제 등과 관련된 문항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반적으로 지연 또는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에 대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사용하고 문제항목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애착, 공감, 마음이론 등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높은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아동의 발달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

- 김용석 · 모선영 · 최현정 · 이자영(2008).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어린이재단 (구 한국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육아정책연구소(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 정윤경 · 성현란 · 장유경 · 심희옥 · 이지연 · 배기조 · 광금주 · 박성혜(2006). 한국영아 발달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발달지표, 보호요인, 위험요인 탐색에 의한 조기 발달 중재모델 개발.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통계청. www.kostat.go.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 Bandura, A.(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adburn, N. M. & Noll, C. E.(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 Chang, H., Ha, J., & Seo, S.(2007).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screening test for young children at risk.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9(1), 265-287.
- Chang, Y.(2004).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18-36 month.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91-105.
- Cowan, P. A. & Cowan, C. P.(2003). Normative family transitions, normal family processes, and healthy child development. In Walsh, F.(Ed.). *Normal fam-*

- ily processes(424-459). N.Y.: Guilford.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e Mol, J. & Buysse, A.(2008). The phenomenology of children's influence on parents.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163-193.
- Donenberg, G. & Baker, B. L.(1993). The impact of young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on their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2), 179-198.
- Fearon, R. M., van IJzendoorn, M. H., Fonagy, P., Bakermans-Kranenburg, M. J., Schuengel, C., & Bokhorst, C. L.(2006). In search of shared and non-shared environmental factors in security of attachment: A behavior-genetic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sensitivity and attachment sec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026-1040.
- Field, T. M.(2002). Early interactions between infants and their postpartum depresse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5(1), 25-29.
- Fonagy, P.(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Y.: Other Press.
- Garon, N., Bryson, S. E., & Smith, I. M.(2008).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A review using an integrative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4(1), 31-60.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odman, R.(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581-586.
- Grossmann, K. E., Grossmann, K., & Waters, E.(2005).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New York: Guilford Press.
- Grusec, J. E. & Goodnow, J. J.(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Han, G., Lee, J., & Chin, M.(2009).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1-14.
- Harris, J. R.(2009).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revised and updated*. N.Y.: Free Press.
- Hesse, E. & Main, M.(2000). Disorganised infant, child, and adult attachment: Collapse in behavioral and attentional strategi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097-1127.
- Huston, T. L.(2002). Power. In Kelley, H. H., Berschied, E., Christensen, A., Harvey, J.,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k, E., Paplau, L. A., & Peterson, D. R.(Eds.). *Close relationship*. N.Y.: Freeman.
- Ireton, H.(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Behavior Science Systems.
- Kerr, M. & Stattin, H.(2003). Parenting of adolescents: action or reaction? In Crouter, A. C. & Booth, A. (Eds.). *Children'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m, J. & Shin, H.(2006).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4), 39-53.
- Kim, K.(2011).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4), 1-17.
- Kim, S. & Choi, H.(2007).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1-11.
- Kuczynski, L. & Parkin, M.(2006). Agency and bidirectionality in socialization: Interactions, transactions, and relational dialectics. In Grusec, J. E. & Hastings, P. D.(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N.Y.: Guilford Press.
- Kuczynski, L.(2003). Beyond bidirectionality: Bilateral conceptu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In Kuczynski, L.(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Kuczynski, L., Harach, L., & Bernardini, S. C.(1999). Psychology's child meets sociology's child: Agency, power and influence in parent-child relations. In Shehan, C.(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Re-visioning children as active agents of family life*. Stamford, CT: JAI.
- Lee, I. & Lee, S.(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

- 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kindergarten's soci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3), 177-189.
- Lee, J. & Lee, S.(2010).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79-197.
- Lenneberg, E. H.(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 Maccoby, E. E.(2003). Dynamic viewpoints on parent-child relations: Their implications for socialization processes. In Kuczynski, L.(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Martins, C. & Gaffan, E. A.(2000).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6), 737-746.
- Min, D. & Park, H.(2012).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emotionality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in terms of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fact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3), 51-58.
- Mundy, P. & Burnette, C.(2005). Joint attention and neurodevelopmental models of autism. In Volkmar, F. & Cohen, J. D.(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650-681). N.Y.: Wiley.
- Music, G.(2011). *Nurturing natures: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al, sociocultural, and brain development*.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Neiderhiser, J. M. & Lichtenstein, P.(2008). The twin and offspring study in Sweden: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genotype-environment interplay by studying twins and their families. *Acta Psychologica Sinica*, 40(10), 1116-1123.
- Palkovitz, R., Marks, L. D., Appleby, D. W., & Holmes, E. K.(2003). Parenting and adult development: Contexts, processes, and produc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Kuczynski, L.(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Park, H. & Chung, G.(2010). My child has raised me: Narratives of family and parenting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y and Culture*, 22(3), 1-30.
- Park, J. & Jang, Y.(2004).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development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8(2), 327-353.
- Piontelli, A.(1992). *From fetus to child: An observational and psychoanalytic stud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Rhee, O.(2000). How much did the studies contribute to society?: A review on child studies for 20 yea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203-216.
- Rhee, O., Hyun, O., Choi, B., Lee, K., Lee, S., & Cho, S.(2002). Address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 a cohort study of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6(2), 385-414.
- Russell, A. & Russell, G.(1992). Child effects in socialization research: Some conceptual and data analysis issues. *Social Development*, 1, 163-184.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Y.: Free Press.
- Sroufe, L. A.(2005).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The Minnesota study of risk and adaptation from birth to adulthood*. N.Y.: Guilford Press.
- Suh, H.(2004). Use of internet as sources of information for purpose of rearing: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321-335.
- Walker, S., Berthelsen, D. C., & Irving, K. A.(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 Watzlawick, P., Jackson, D. D., & Beavin, J. H.(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na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N.Y.
- Widdowson, E. M.(1951). Mental contentment and physical growth. *The Lancet*, 1(24), 1316-1318.
- Winsler, A., Fernyhough, C., & Montero, I.(2009). *Private speech,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 development of verbal self-regulat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J. J., Cowan, P. A., & Baker, B. L.(2002). Behavioral problems and peer rejection in preschool boys

and girl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
72-88.

- 접수일 : 2012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09일